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이 지 은** · 김 지 현***

1. 머리말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선행연구
2. 미술관 아카이브의 개념 및 기술
 - 1) 미술 아카이브 범위 및 특징
 - 2) 미술관 아카이브의 개념 및 유형
 - 3) 미술관 아카이브 정리 및 기술
3.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비교 분석
 - 1) 보존기록의 국제적·국가적 기술규칙 분석
 - 2) 국내·외 미술관 사례 기술요소 비교 분석
4.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안)
 - 1) 기술요소 설계 원칙
 - 2) 기술요소 제안
5. 결론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15)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 <lje0122@hotmail.com>, <je0122@korea.kr>(주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 <kim.jh@ewha.ac.kr>(교신저자). 주요 논저 : 김지현,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2012; 김지현,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2014; 이귀영, 김지현, 「중앙행정기관의 소셜미디어 아카이브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015.

▪투고일 : 2015년 9월 19일 ▪최초심사일 : 2015년 9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일

[국문초록]

미술관 아카이브는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된 개인 및 기관과 관련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물리적·내용적 측면에서 다양성과 특수성을 가진다. 더 나아가 정보적·증거적 가치를 지니는 미술관 아카이브는 미술관 및 미술사 연구를 지원하고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미술관 아카이브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선행해야 할 것은 기술(記述)이다. 기술은 자료에 대한 개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생산 맥락을 제공하고 검색의 유용한 도구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미술관, 미술관련 기관에서는 자료의 보존과 관리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건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단편적인 정보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록이 가진 속성 가운데 구조와 맥락의 요소가 유지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 구축 과정 중 필수적인 단계인 기술을 중심으로 미술관 아카이브의 기술요소를 제안하며 계층적·집합적 기술을 통해 기록의 생산 맥락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미술관 아카이브가 기관이나 조직의 기록보다 개인의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체와 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미술관 독자적인 기술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미술 아카이브,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미술 아카이브 기술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술관 아카이브는 미적·감상적 가치를 지니는 미술 작품을 제외한 작가나 평론가 등의 작가노트, 메모, 드로잉, 전시인쇄물과 미술관련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정책과 현안이 담긴 문서, 시청각자료 등의 미술 아카이브를 포함한다. 이러한 미술관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 절대적인 시간, 전문적인 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술관 내에 미술 아카이브 센터를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¹⁾

최근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의 몇몇 미술 관련 기관들은 국외 박물관과 미술관 아카이브의 수집, 구축, 관리, 활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박물관, 미술관, 미술 유관 기관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보다는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활용하고 서비스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또는 전시, 출판 등에 기록을 활용하면서 이를 구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인식적인 측면과 운영적 측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식적인 측면에서,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 아카이브의 조사·연구 기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전시·출판의 부수적 기능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 이는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관리 과정 및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 Lemke, Antje B. and Stam, Deirdre C., Jane Turner eds., "The dictionary of art. New York: Grove's Dictionaries", 1996.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 국내 대부분의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관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술관에는 전시·교육·연구 등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데, 아카이브 사업 역시 미술관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 사업은 미술관의 다른 사업과 견주었을 때, 가시화되기 힘들고 절대적인 시간과 예산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단기간에 성과를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2항에서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기관이다. 그 가운데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관의 여러 기능 중 조사·연구 영역을 담당하는 골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본래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은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소장하고 그에 따른 제반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결국 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일정한 예산과 인력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및 연구센터의 형태를 갖는 기관이다. 김달진(2012)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곳은 22곳이다.³⁾ 이들 가운데 기관에 부합하는 미술 아카이브의 정책을 마련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며 국제적 지침에 맞게 자료를 계층적·집합적으로 구축하는 기관은 극소수이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는 기록 보존·관리를 위한 표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3) 김달진, 「한국 미술 아카이브의 분포 상황 및 수집여건과 과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4, 2012, 241-282쪽.

준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건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단편적인 정보적 가치 또는 정보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기록이 가진 속성 가운데 구조와 맥락의 요소가 유지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술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부터 미술 아카이브 본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록의 생산자가 구축한 조직방식과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록을 계층적·집합적으로 기술하여 자료별 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자료의 생산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록 검색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소장된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준화된 미술 아카이브의 기술요소가 선행되어 존재해야 하며 더불어 다양한 매체와 유형, 개인 기록 등의 미술 아카이브 특징이 반영된 독자적인 기술요소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술 아카이브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술목록이 생산·관리된다면 유관 기관과의 기술 목록 교환과 통합도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에 소장된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미술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기술요소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술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실무자 의견 조사를 통해 미술관련 개인, 기관, 단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술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 아카이브의 의미, 형태 등을 정의하고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또한 국제기술표준

및 각 국가에서 준용하고 있는 아카이브 기술규칙에서 제시하는 기술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이하 ICA)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기록물 기술규칙(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이하 ISAD(G)) 2판⁴⁾의 기술영역과 기술요소를 기준으로 영국의 보존기록 기술규칙(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 이하 MAD) 3판⁵⁾, 미국의 보존기록 기술규칙(Describing Archives: A Component Standard, 이하 DACS) 2판⁶⁾, 캐나다 보존기록 기술규칙(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이하 RAD) 개정판⁷⁾, 한국의 국가기록원에서 제정한 영구기록물 기술규칙(Archival Description Rules, NAK/S 14:2011) 2판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요소를 분석하였다.

둘째,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외 및 국내 미술관 혹은 미술관련 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해외 미술 아카이브 사례는 영어권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의 미술관과 미술 아카이브 센터 중에서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미술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구축하고 조사,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 세 국가 내에서 Lemke와 Stam(1996)⁹⁾이 제시한 대로 미술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미술관에 소속되어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기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

4)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2nded, Ottaw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5) Procter, Margaret and Cook, Michael, 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 3rded, Hampshire: Gower, 2000.

6)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2nded,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13.

7) National Archives of Canada,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Revised version, Ottawa: Canada, 2008.

8)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NAK/S14:2011(v2.0), 대전: 국가기록원, 2011.

9) Antje B Lemke and Deirdre C Stam, Jane Turner eds., 앞의 글, 1996.

외 기관으로는 미국의 게티미술연구소(Getty Research Institutes, GRI), 미술관에 소속되어 미술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미국의 모마(Museum of Modern Art, MoMA), 영국의 테이트(TATE), 캐나다의 캐나다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 NGC)을 선정하였다.

국내 미술관 또는 미술관련 기관의 미술 아카이브 사례분석은 김달진(2012)이 미술관 기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6회에 걸쳐 조사된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관은 총 22곳이다. 아트센터를 포함한 국·공립 미술관 15곳, 사립미술관 2곳, 대안공간 2곳, 예술자료원 1곳, 대학교 부설 연구소 2곳을 포함한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조사된 기관들 중 원활한 미술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제시한 제반시설과 인력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그 가운데 미술 아카이브의 계층적·집합적 기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사례 분석기관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 2곳을 선정하였다.

셋째, 사례분석과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국외 미술관련 기관 4곳, 국내 미술관련 기관 2곳에서 미술 아카이브의 실무 담당자 4명과 심층 면담 혹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국외 기관의 경우, 실무자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테이트를 제외하고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거나 응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 테이트의 아카이브 큐레이터(archive curator) 1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기관의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사례 분석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기술지침(v.2.0) 개발에 참여한 학예연구사(curator) 1명과 매뉴스크립트를 담당하는 아키비스트 1명을 심층면담 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 아카이브를 총괄하는 아키비스트 1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규모, 인력, 정

10) 김달진, 앞의 글, 2012, 241-282쪽.

리체계 뿐만 아니라 준용하고 있는 기술규칙 및 각 기관별 미술관 아카이브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¹¹⁾

3) 선행연구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술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구와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는 김기현(2000)¹²⁾, 황동열(2007)¹³⁾, 정혜린(2008)¹⁴⁾이 있다. 김기현과 황동열은 미술 아카이브의 범주를 미술작품을 제외하고, 정혜린은 미술작품을 포함하여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국내 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열악함을 비판하고 국외 현황과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예술분야의 정리·기술과 미술 아카이브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에는 설문원(2011)¹⁵⁾, 김경연(2012)¹⁶⁾이 있다. 설문원의 연구에서는 국내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의 아카이브가 출처 및 원질서 원칙에 기반을

-
- 11)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된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설문지에는 미술 아카이브 용어 정의와 개념, 정리·기술시 바람직한 논리적 계층 구성 방식, 각 기관의 정리 및 기술 원칙 및 필수요소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지은,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위논문 국문, 영문 설문지, 2015, 146-168쪽 참고.
 - 12) 김기현,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2000.
 - 13) 황동열, 「예술 아카이브의 현황과 도입방안의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2, 2007, 177-215쪽.
 - 14) 정혜린, 「미술작품의 기록가치 구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8.
 - 15) 설문원,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217-247쪽.
 - 16) 김경연, 「아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12.

둔 정리가 도외시 된 채, 개별적 정보 단위로 혹은 기록 유형이나 매체 별로 정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개인으로 수집되는 경향이 있는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경우, 기록관리 관점에서 출처와 원질서에 따른 정리를 통해 증거적 가치를 보존하며 다양한 속성별 분류를 병행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 예술가의 흔적과 맥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연의 연구에서는 미술작품을 미술 아카이브의 범위에 포함하여 미술 기록을 정의하면서 국내 미술기록에 대한 자료 수집, 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점차 다양해지는 미술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운영방향과 문화예술자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인혜(2012)¹⁷⁾는 미술 아카이브 운영에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시설(facility), 체계(system), 커뮤니티(communitiy)로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커뮤니티가 아카이브의 존재 근거이자 최종목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표가 연구·학술·출판에 있음을 피력하였다. 백지원(2013)¹⁸⁾은 국내 예술자원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각기 다른 표준과 방식에 따라 자료를 조직화하고 상이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관리 및 서비스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유관 자원 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자원간의 유연한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자원에 대한 통합검색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범위가 연구에 따라 상이하며 예술분야 또는 시각예술분야의 미술 아카

17)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운영 구상: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운영구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012, 301-310쪽.

18) 백지원, 「시각예술자원 통합검색 유형 분석 및 적용 방향성 정립」, 『정보관리학회지』 30(3) 2013, 111-131쪽.

이브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관의 서면 인터뷰와 면대면 심층 면담을 통해 각 기관의 정리 체계, 기술요소, 기술규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국제적·국가적 기술 표준 규칙에 근거해 국내 미술계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제안하고 제안된 기술요소를 실제 미술 아카이브에 적용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의 범위와 특징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국외 및 국내 기관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 아카이브 기술요소를 조사하고 국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미술관 아카이브의 개념 및 기술

1) 미술 아카이브 범위 및 특징

(1) 미술 아카이브의 범위

국내 미술계에서 미술 아카이브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미술 아카이브가 개인 및 기관이 수행하는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기록을 포함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미술 작품이 기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양분된 주장이 존재한다. 미술 작품이 아카이브 영역에 포함된다는 연구에는 정혜린(2008)¹⁹⁾이 있다. 정혜린은 미술 작품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를 설파한 Scott(1998)²⁰⁾

19) 정혜린, 앞의 글, 2008.

20) David, Scott, "Museum data bank research report: The Yogi and the registrar", Library Trends 37(2): 1988, pp.130-141.

의 미술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가 주장한 미술 작품이 갖는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Scott에 따르면, 미술 작품은 1차적 미적 가치(aesthetic value), 2차적 기록적 가치(documentary value)가 있으며 그 밖에도 조합적 가치(association value),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정혜린은 미술 작품을 기록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주장들은 미술 작품이 가지는 미적 가치 이외의 다른 가치들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미술 작품이 1차적으로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향후 창작자의 사유와 행위를 방증하는 기록으로서 가지는 가치의 무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미술 작품이 미술 아카이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연구에는 김철효(1998)²¹⁾, 김달진(2012)²²⁾, 박상애(2014)²³⁾가 있다.

김철효는 미술 아카이브가 미술 작품을 제외한 미술과 관련한 모든 매체와 종류의 기록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술 기록은 정보를 제공할 뿐 시각적 감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때때로 기록물 자체가 미적 가치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이 기록물의 고유한 가치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기록물의 고유한 가치란, 미술 작품에 해석의 단서를 줄 수 있는 작가의 메모, 편지, 일기, 또는 전시기획서, 미술 운동의 선언문처럼 정보를 지닌 것과 미술의 역사를 입증할 증빙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달진은 미술 아카이브를 시각예술 분야와 관련된 제반자료로 기록과 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에서부터 협소하게는 미술 작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국내 상황에서 '기록으로서의 미술 작품'을 미술 아카이브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다.²⁴⁾

21) 김철효, 「미술 아카이브, 작품을 뺀 모든 것」, 『미술 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 한길아트, 2005.

22) 김달진, 앞의 글, 2012, 241-282쪽.

23) 박상애, 「미술관 아카이브와 교육」, 『박물관교육연구』 11, 2014, 11-31쪽.

박상에 역시 작품과 아카이브가 지니는 속성과 가치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작품 수집이 미술관 업무로 별도 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품을 시각예술 아카이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관의 수집정책에 따라 작품으로 분류하여 수집하는 대상은 아카이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작품을 제외하고 미술 아카이브 범주를 정의한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미술 아카이브를 정의하고자 한다. 미술 작품이 Scott(1998)의 언급대로 기록물에서 나타나는 정보적·조합적·기능적 가치를 가지지만 지배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가치는 미적 가치이다. 또한 미술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의 고유한 가치란, 미술 작품 해석의 단서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지닌 것과 미술의 역사를 입증할 증빙의 가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작품을 제외한 범주 내에서 미술 아카이브를 논의하고자 한다.

(2) 미술 아카이브의 특징

미술 아카이브의 특징은 설문원(2011)²⁵⁾, 류한승(2012)²⁶⁾, 박상애(2014)²⁷⁾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술 아카이브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기록들은 예술가의 사적인 혹은 예술 활동의 내용을 담은 기록으로 개인적이고 개별화된 활동을 통해 창작되기에 주관적인 목적과 철학을 내포한다. 대개 이 기록들은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 개인의 통제 하에 직접 축적된 질서에 따라 관리되

24) 김달진과의 서면인터뷰, 2015. 6. 12.

25) 설문원, 앞의 글, 2011, 217-247쪽.

26) 류한승,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012, 285-296쪽.

27) 박상애, 앞의 글, 2014, 11-31쪽.

며 이렇게 수집된 기록들은 작가가 타계한 후, 아카이브에 기증되거나 수집가의 손을 거쳐 인계된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매뉴스크립트 중 작가 컬렉션의 한 부분으로 보관된다.

둘째,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진다. 미술 아카이브의 유형은 일반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리플릿, 브로슈어, 초대장 등의 전시인쇄물과 사진, 필름, 비디오를 포함한 시청각자료, 작가 스크랩, 모음집과 같은 이종(異種)자료, 드로잉, 마케트(maquette)와 같이 준작품의 성격을 갖는 자료를 포함한다. 이 유형의 창작물을 생산하는 주체는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상당수의 개인이나 단체이다. 이들은 유일무이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유하며 그에 상응하는 매체를 사용한다. 이러한 까닭에 미술 아카이브는 이를 담을 수 있는 각종 매체와 형식을 갖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과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미술 아카이브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으로 미술 아카이브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표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미술 아카이브는 기록 자체가 작품이거나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판화, 드로잉, 사진, 비디오 편집본 등은 미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므로 작품의 속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작품의 속성을 지닌 것들은 별도로 작품으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그에 반해 작품의 성격에 준하지만 자료로 분류된 경우 출처주의에 따라 다른 기록들과 함께 하나의 컬렉션으로 보존된다. 다만 작품으로 구분된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작품과 준작품 사이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요구되며 출처주의와 원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키비스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미술 작품은 같은 작품이라도 여러 버전이나 재현물로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 미술 아카이브 역시도 다양한 버전과 여러 재현물로 존재한다. 퍼포먼스 아트의 경우 행위자, 촬영자, 행위의 도구에 따라 다른 표현방식을 가진 재현이 나타나고 이는 또 다른 작품이 된다. 작품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재현될 때, 시놉시스(synopsis), 콘티(conti), 작품으로

완성되기 직전까지의 영상 등 증거적 가치가 담긴 다양한 자료 등이 생산된다. 이때 행해진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제작의도와 구체적인 배경, 정확한 제작연도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가의 의도, 계기, 사용 매체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행위를 했을 당시의 기록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술채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된 구술기록은 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다섯째,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다. 미술 아카이브는 작품 창작 활동 과정 혹은 미술관련 기관에서 전시·홍보·교육 등을 통해 입수되는 기록물부터 인물, 미술사조, 주제별, 매체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수집되거나 기증된 자료들까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료의 획득 당시 수집 이력을 파악하지 못하면, 자료의 수집 맥락은 사라지게 되며 자료의 원질서를 유지하기 힘들다.

여섯째, 미술 아카이브는 1차 자료뿐만 아니라 2차 자료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작가가 자신과 관련한 신문, 잡지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본인의 작품에 대한 평론, 평문을 수집하거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작가의 카탈로그, 도서 등을 소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가가 수집한 2차 자료들의 경우 분리하지 않고 출처주의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하나의 컬렉션으로 보존되어 관리된다. 경우에 따라 작가와 개연성이 없는 자료라고 판단될 경우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특징을 미술 아카이브 기술요소와 기술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관성 있는 기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나 매체, 수집원이나 원천을 가진 기록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규칙과 함께 매체별로 특수한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다.²⁸⁾

28)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앞의 글, 2013.

2) 미술관 아카이브의 개념 및 유형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 아카이브는 시각예술과 조형예술을 포함한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사진, 설치미술, 영상, 퍼포먼스 분야와 관련한 개인 또는 기관의 기록으로 증거적, 정보적 가치를 지니며 지속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를 평가받아 폐기하지 않고 영구보존해야 할 아카이브이다.²⁹⁾ 더불어 작가, 평론가, 미술사가 등을 포함한 개인 및 미술 분야의 다양한 조직의 출처로부터 수집된 매뉴스크립트(manuscripts)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는 물리적 형태와 관계 없이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일정 기간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향후 활용 목적을 위하여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이다. 하지만 이 두 기록은 수집 방식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카이브는 생산 출처별로 조직으로부터 이관되거나 입수되어 하나의 원천으로 수집되지만 매뉴스크립트는 어떠한 기준이나 의도 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 모은 인위적인 기록집합체이다.³⁰⁾

미술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관은 주로 미술관, 미술관련 단체, 조직이다. 이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일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해 관리되며 이를 소장하는 기관은 조직형 보존소의 기능

29)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이하 SAA)의 미술관 아카이브 부서(Museum Archives Section)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술관 아카이브는 행정적, 법적, 재정적, 연구 가치가 있는 비현용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술관 아카이브를, 미술관에서 생산한 모든 형태의 행정 기록, 미술관 소장품과 관련한 기록 및 개인 혹은 조직에 의해 수집된 기록으로 구분하였다.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Museum Archives Guidelines, 2003, [Online] [인용날짜: 2015. 1. 24.], (<http://www2.archivists.org/groups/museum-archives-section/museum-archives-guidelines>).

30) Fredric M, Miller,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2002.

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근·현대미술과 관련된 작가, 평론가, 언론인, 미술 단체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증받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개인기록물을 주된 수집대상으로 하므로 수집형 보존소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더불어 미술 관련 개인 또는 단체 기록물을 다양한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련 기관들은 조직형 보존소와 수집형 보존소의 기능이 공존하지만 수집형 보존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 아카이브를 미술관이 생성한 미술관 기관기록과 미술관의 운영 및 수집 정책에 의해 수집된 미술관 매뉴스크립트로 나누어 정의하고자 한다.

(1) 미술관 기관기록

미술관 아카이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조직과 정책, 기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술관 기관기록은 이 같은 기록물을 포함하며 미술관 혹은 미술 유관 기관의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전체를 의미한다. 이 기록의 대부분은 미술관에 소속된 개인이 미술관의 주요 업무인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생산한 것이다. Wythe(2004)는 미술관 기록은 기록을 생산한 부서가 아닌 미술관의 기능에 따라 조직해야한다고 언급하며 그 기능을 학예기능과 행정기능으로 구분하였다.³¹⁾ 이는 미술관 조직의 규모와 변화에 따라 부서의 명칭과 업무가 상이하기에 미술관에서 생산된 미술관 기관기록은 기능별로 생산·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미술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학예기능이며 이 기능 내에는 소장작품의 수집과 보존, 전시·교육 기획, 학술연구 및 출판 및 운영 등이 있고 그 기능에 따라 부서가 조직된다.³²⁾ 미술관의

31) Wythe, Deborah, *The Museum Context*, Wythe, Deborah eds, *Museum Archives: an Introduction*,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4.

관리대상인 이 기록들은 주로 소장작품 수집, 전시 조성공사, 작가 지원비 등과 관련한 계약이나 운영회 업무, 각종 심사와 같은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획득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들이다.

〈표 1〉 미술관 기능에 따른 미술관 기관기록 유형³³⁾

기능	세부 기능	자료 유형
미술관 고유 기능	작품 수집	작품 중장기 계획 서류를 포함한 작품 구입 및 기증 관련 각종 문서, 회의록, 사진, 음성파일, 영상 등
	작품 보존	작품보존 상태 점검 문서, 복원시 생성된 관리 문서, 작가자료, 복원 전·후 사진, 영상, 도구 등
	작품 관리	소장작품 부문별 관리대장, 반입·반출대여 이력이 담긴 문서, 저작권 관련 문서, 소장품 슬라이드, 설치매뉴얼 등
	전시	작가 리서치 자료, 파일, 전시 디자인 및 조성 관련자료, 전시목록, 전시인쇄물, 전시 광경 사진, 영상 등
	교육	교육 및 전시연계 프로그램 관련 각종 문서와 결과물, 현장 사진, 영상 등
	연구·출판	미술관 출판 인쇄물 및 작가 자료, 학술행사 각종 자료, 사진, 영상 등
	홍보	미술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되는 다양한 기능과 관련한 각종 홍보 문서, 사진, 영상, 신문, 간행물 등
행정 기능	행정업무	인사, 회계, 미술관 고유 업무 시 발생하는 재정 담당 문서, 연례보고서 등

미술관 기관기록 가운데 비현용을 제외한 현용, 준현용 기록은 기록 관리 전담부서에서 기록관리자(record manager)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만약 이를 관리할 기록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처리과 직원이나 아키비스트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국외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이 기록물들은 각 국가에서 준용하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

32) Wythe(2004)는 미술관이 생성하는 기록을 첫째, 미술관 관장과 같은 핵심 인력이 미술관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한 정보, 둘째, 미술관 수집·전시 및 설치·연구·교육과 관련한 정보, 셋째, 작품보존 및 레지스트라 관련 정보, 넷째, 개발 및 펀딩·일반행정·봉사활동과 관련한 정보, 다섯째, 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미술관 건축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이 분류에 따른 대표적인 미술관 자료의 유형을 회의록, 오디오테이프, 보고서, 이사회 서신파일 등으로 구분하였다. Wythe, Deborah, 앞의 글, 2004.

33) 박상에, 앞의 글, 2014, 18쪽., Wythe, Deborah, 위의 글, 2004, 12-18쪽 내용 재구성.

존기한에 따라 보존된 후, 평가를 거쳐 폐기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다. 국내 국·공립 미술관 역시 미술관 기관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존연한에 따라 폐기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이관된다. 하지만 국·공립 미술관 비현용기록 가운데 직원이 참조자료로 빈번히 활용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 후 기록관의 비치기록물로 보존·보관할 수 있다.

(2) 미술관 매뉴스크립트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미술관 매뉴스크립트는 미술관 내외에서 생산된 매뉴스크립트로 나눌 수 있다. 미술관 내에서 생산된 매뉴스크립트는 미술관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적되거나 미술관 조직 내에서 관장 또는 학예직과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직원들이 인위적으로 수집한 전문적인 문서나 파일 등을 말한다. 이 같은 컬렉션을 편의상 미술관 기관기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입수 절차가 미술관 기관기록과는 다르기 때문에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또는 스페셜 컬렉션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⁴⁾ 대부분의 자료는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이 공적인 업무활동에 따라 생산한 기록과 개별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것으로 서신, 위원회의 기록, 도서, 전시인쇄물, 상패 등이 있다.

이 매뉴스크립트는 대체로 두 가지 경로로 수집된다. 첫째 미술관 고유 업무인 전시, 교육, 수집, 출판 등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집되는데 이 가운데 미술관 기관자료의 성격이 강한 것은 미술관 기관자료로 분리되어 미술관 기능에 맞게 정리하여 보존·관리한다. 둘째, 미술관 아카이브 수집 정책에 의해 미술관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기여를 한

34) William A. Deiss, "Museum Archives: An Introduction",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1984.

인물이나 단체들의 자료들이 수집되며 이는 출처주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관한다.

미술관 밖에서 생산된 매뉴스크립트는 미술관 수집 정책에 따라 일정한 목적 하에 수집된 미술관련 개인과 단체 및 기관과 관련된 것이다. 수집 대상이 되는 개인은 미술관련 작가, 미술사학자, 평론가, 언론인, 갤러리스트, 수집가가 대표적이다. 수집 대상이 되는 단체 및 기관은 근·현대 미술에 있어서 미술사적·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곳으로 미술관련 협회, 갤러리, 경매사 등이 있다. 이 매뉴스크립트는 미술관의 미션과 수집범위에 따라 각 기관마다 상이하다.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대개 전시와 관련된 자료 또는 각 개인의 활동과 관련한 문서, 시청각자료, 개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담은 노트, 메모 등의 유형을 포함한다. 작가 자료의 경우, 작가가 작품이 되기 전 단계 또는 작업을 하면서 드로잉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메모한 자료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품을 역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작품 자체만으로는 정확한 작품의 제목이나 제작 연도 및 작가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작가 혹은 관련 인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판독하여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된 정보를 기초로 작품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작품의 에디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작품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미술사 연구의 기초가 된다. 또한 단체로부터 입수된 자료의 경우, 단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단체에 소속된 개인 기록, 작품의 매매기록 및 경매기록 등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단체들을 재조명하고 미술사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

미술관 아카이브는 조직으로부터 이관되거나 입수되는 기록보다 특

정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기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거나 일정한 조직 방식과 순서 없이 무작위로 입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의 전후 맥락과 정보가 파편적으로 수집되어 기록의 유기적인 내적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존기록 정리의 기본원칙과 계층구조가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Darnell 2004). ‘출처의 원칙’에 따라 컬렉션을 구성하고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따라 원질서의 재구성을 최대한 자체하면서 생산자의 의도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기록의 배치상태에는 생산자의 당시 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작은 흔적이라도 섬세하게 남기고자 노력해야 한다.³⁵⁾ 동시에 자료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장가 혹은 생산자와의 면담 또는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원질서를 추론하고 이를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질서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 자료에 따라 주제별, 연대별, 알파벳순 혹은 자료순으로 정리하여 기술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 아카이브는 영구보존기록물의 속성을 지니는 기록물로 보존기록의 기술원칙인 집합적 기술의 원칙(collective description rule)과 다계층 기술의 원칙(multilevel description rule)이 그대로 적용된다. 집합적 기술의 원칙은 기록물 세트를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으로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³⁶⁾ 집합적 기술의 원칙은 기록의 건 보다는 상위의 기록 집합체, 컬렉션, 시리즈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해줄 경우, 기록이 생산된 전후 맥락은 물론 어떤 업무나 조직과 관련된 기록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³⁷⁾ 이는 개별 기록의 내용보다는

35) 설문원, 앞의 글, 2011, 217-247쪽.

36) Fredric M, Miller, 앞의 글, 조경구 역, 진리탐구, 2002.

37) 설문원, 앞의 글, 2011, 217-247쪽.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여 기록의 맥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합적 기술은 가장 광범위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집합체의 공통 특성들을 기술해 내려감으로서 분리된 기록물 세트 각각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없애주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³⁸⁾ 다계층 기술의 원칙은 기술시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것의 순서대로 해당 기술 계층에 적절한 정보만을 기술하며, 각 계층 간의 기술을 연결하고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⁹⁾ 즉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기록물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분리된 기록물 세트들을 집합적으로 정리하고 기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기록물을 기관 내 소장되어 있는 전체의 체계 속에서 서로 연관시켜주는 구조를 만들어 이용자가 기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료를 생성한 생산자의 의도와 맥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지며 기록 자체가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을 포함하기에 개체별로 관리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는 집합적·계층적 기술뿐만 아니라 건 단위를 기본으로 한 개체별 기술도 필요하다. 이렇게 미술 아카이브의 특징이 반영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술관 또는 미술 유관 기관에 소속된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미술 아카이브 기술시 정리계층을 반영하고 미술 아카이브 기술이 계층별, 크기별, 매체별로 상이하더라도 이를 구축, 관리하는 기관에서 미술 아카이브의 특징을 반영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아카이브 협회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⁰⁾

38) Fredric M, Miller, *앞의 글*, 조경구 역, 진리탐구, 2002.

39)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앞의 글*, 2000.

40) Wythe, Deborah, *앞의 글*, 2004.

3.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비교 분석

1) 보존기록의 국제적·국가적 기술규칙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 아카이브에 준용되고 있는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준없이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기술요소를 제안하는 것보다 미술 아카이브에 특화된 기준이 아니라할지라도 국제표준과 국가표준들을 참조하여 기술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기술요소는 국내·외 미술관 아카이브 사례에서 활용되는 기술요소를 조사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미술관 아카이브는 보존기록의 속성을 지닌 기록물로 일반기록물의 특성뿐만 아니라 미술이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 기술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영국 MAD나 캐나다 RAD의 경우 음성기록물, 건축, 사진 등과 같은 특수유형에 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할 만큼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특수유형의 기술을 표현함에 있어 대부분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몇몇의 개별적인 특수유형의 기술요소를 다른 기술규칙보다 다양한 특수유형을 포함하며 포괄적인 기록물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의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도 토대로 하고 있는 국제기술표준인 ISAD(G) 2판에 나타난 기술영역을 비교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미술관 사례 기관 국가인 미국의 DACS 2판, 영국의 MAD 3판, 캐나다의 RAD 개정판, 한국의 NAK 2판에서 제시된 일반기록물 기술규칙을 살펴보았다. 이들 기술표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미술관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표 2>와 같다.

〈표 2〉 ISAD(G)와 국가별 기술 규칙 비교

기술 규칙 기술 영역	ISAD(G)	DACS	RAD	MAD	NAK
	기술요소	하위기술요소	기술요소/ 하위 기술요소	기술하위영역	기술요소
식별 영역	3.1.1 참조코드	2.1 참조코드	1.9B 표준번호	14.2A 참조코드	4.3.1 참조코드
	3.1.2 제목	2.3 제목	1.1B 제목	14.2B 제목	4.3.2 제목
			1.1C 일반자료유형		
			1.1D 대등제목		
			1.1E 기타 제목 정보		
3.1.3 일자	2.4 일자	1.4B 생산일자	14.2C 일자	4.3.3 일자	
		1.4F 출판일-배포일			
		1.4G 제작일			
3.1.4 기술계층	1. 기술계층	-	14.2D 계층번호	4.3.4 기술계층	
3.1.5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2.5 규모	1.5B 기술단위의 규모	14.2E 규모와 물리적 특성	4.3.5 기술단위의 규모와 유형	
맥락 영역	3.2.1 생산자명	2.6 생산자명	1.1F 책임표시	-	4.4.1 생산자명
			1.4C 출판자-배포지		
			1.4D 출판자-배포자		
			1.4E 출판자-배포자의 역할표시		
			1.4G 제작자-제작자		
3.2.2 행정연혁/개인이력	2.7 행정연혁/개인이력	1.7B 행정연혁/개인이력	14.3A 행정연혁/개인이력	4.4.2 행정연혁/개인이력	
3.2.3 기록관리 이력	5.1 소장이력	1.7C 소장이력	14.3B 소장이력 14.7A 입수기록	4.4.3 기록물 이력	
3.2.4 수집/인수 이전의 출처	5.2 수집 이전의 직접적 출처	13.8B12 수집 직접의 출처	-	4.4.4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내용과 구조 영역	3.3.1 범위와 내용	3.1 범위와 내용	1.7D 범위와 내용	14.4A 범위와 내용/기술 14.8B 기술기록	4.5.1 범위와 내용
	3.3.2 평가, 폐기, 처분일정 정보	5.3 평가, 폐기, 처분일정 정보	-	14.4D 평가원칙 14.8G 평가원도기록	4.5.2 평가, 폐기, 처분일정 정보
	3.3.3 추가이관	5.4 추가이관	1.8B19 추가이관	14.7A6 추가이관	4.5.3 추가 수집/예산기록물
	3.3.4 정리체계	3.2 정리체계	1.8B13 정리	14.4D3 정리시스템	4.5.4 정리체계
			1.3 자료영역	14.8A 정리기록	
접근과 이용 조건 영역	3.4.1 접근조건	4.1 접근조건	1.8B16a 접근제한	14.5A 접근기록 14.8D 사용발생기록	4.6.1 접근환경
	3.4.2 재생산 조건	4.4 재생산과 이용조건	1.8B16c 재생산과 이용조건	14.5A2 재생산 조건 14.5a3 저작권 정보	4.6.2 이용환경
	3.4.3 언어와 자체	4.5 언어와 자체	1.8B14 언어	14.4B 외국어	4.6.3 자료의 언어
	3.4.4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4.2 물리적 접근	1.8B91 물리적 조건	14.4C 물리적 기술	4.6.4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조건
			1.5C 기타 물리적 기술사항		
1.5D 매체의 크기			14.9A 행정		
	4.3 기술적 접근	1.5E 동반자료	14.9B 보존기록		
3.4.5 검색도구	4.6 검색도구	1.8B17 검색도구	-	4.6.5 검색도구	
3.5.1 원본의 존재와 위치	6.1 원본의 존재와 위치	1.8B15a 원본위치	-	4.7.1 원본의 존재와 위치	
3.5.2 사본의 존재와 위치	6.2 사본의 존재와 위치	1.8B15b 다른 포맷 이용가능성	-	4.7.2 사본의 존재와 위치	
연관 자료 영역	3.5.3 관련 기술 단위	6.3 관련자료	1.8B18 관련자료	14.5C 관련기록	4.7.3 관련 기술 단위
			1.8B20a 동일 계층내 연관 그룹	14.8F 대어기록	
				14.5D 전사기록	
	3.5.4 출판주기	6.4 출판주기	1.2B 에디션 표시	14.5B 출판기록	4.7.4 출판물 설명
			1.2C 에디션 관련 책임 표시		
1.6B 출판사의 총서 제목					
1.6C 출판사의 총서 대등 제목					
1.6D 출판사의 총서 기타 제목 정보					
1.6E 출판사의 총서에 대한 책임표시					
1.6F 출판사 총서번호					
주기 영역	3.6.1 주기	7.1 주기	1.8B 주기	-	4.8.1 추가설명
기술 통제 영역	3.7.1 아카이스트 주기	8.1.5 아카이스트와 일자	-	14.4D 아카이스트 주기	4.9.1 기술담당자
	3.7.2 규칙과 협약	8.1.4 규칙과 협약	-	-	4.9.2 규칙과 협약
3.7.3 기술일자	8.1.5 아카이스트와 일자	-	-	-	4.9.3 기술일자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ISAD(G)를 기준으로 일반기록물의 국가별 기술규칙을 연결해보면, 각각의 기술영역과 기술요소의 일대일 매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표준에서 제시한 기술영역은 여러 개의 영역으로 분산,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ISAD(G) 7개 영역 내 기술요소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기술요소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ISAD(G)에서 누락된 국가별 기술 규칙의 기술영역 및 기술요소

기술영역 \ 기술규칙	DACS	MAD	NAK
식별요소/정보영역	2.2 수장고명과 위치	14.7B 위치기록	-
처리 과정 통제 영역	-	14.8C 분류기록	-
		14.8E 문의기록	
내용과 구조 영역	-	-	4.5.5 색인어

ISAD(G) 기술요소와 부합하지 않는 기술요소 중 DACS의 ‘2.2 수장고명과 위치’와 MAD의 ‘14.7B 위치기록’은 자료의 소장 위치를 식별하게 하는 기술요소로 두 기술요소간의 연결이 가능하였다. MAD의 처리과정 통제 영역의 ‘14.8C 분류기록’, ‘14.8E 문의기록’과 NAK의 내용과 구조 영역의 ‘4.5.5 색인어’는 각 국가들의 기술요소 사이에서도 별도로 존재하는 기술요소였다. 이 가운데 NAK ‘4.5.5 색인어’는 인명, 지명, 단체명, 주제명, 사건명 등을 기술하여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록원의 독자적인 기술요소였다.

2) 국내·외 미술관 사례 기술요소 비교 분석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미술 아카이브 사례는 영어권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의 미술관과 연구센터

중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미술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구축하고 조사, 연구 등의 활용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기술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함에 있어 세 국가 내에서 Lemke와 Stam(1996)이 제시한 대로 미술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미술관에 소속되어 미술관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기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외 기관으로는 미국의 게티미술연구소, 미술관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미술 아카이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미국의 모마, 영국의 테이트, 캐나다의 캐나다국립미술관을 선정하였다. 이 기관 모두 국내 미술관 혹은 미술 유관 기관들이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에 있어 표본을 삼아 분석한 바 있다.⁴¹⁾

국내 미술관 또는 미술 유관 기관에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관 현황에 대하여 김달진(2012)의 연구를 기준으로 국내 기관을 선정한 후,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관은 22곳으로 대부분은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보다 미술관 부설기관으로서 미술관 자료실의 부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22곳 기관들이 원활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제반시설과 인력 조건들을 종합하고 기록의 계층적·집합적 기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은 국·공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 2곳이었다.

국내에서 아직 미술 아카이브에 관한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

41) 설문원 외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의 시각예술기록자료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개발방향서 정립 최종보고서』, 2012., 백지원, 앞의 글, 2013., 류한승, 앞의 글, 2012.

지만 일반기록물을 위한 기술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 규칙은 기록 관리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ISAD(G)를 기반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ISAD(G)의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술관련 기관 4곳, 국내 미술관련 기관 2곳의 기술요소에 관한 사례조사를 토대로 기술 요소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ISAD(G)를 기준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미술관 4곳의 기술요소와 국내 미술관 2곳의 기술요소를 연결해본 결과, 첫째, ISAD(G)와 명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요소, 둘째, ISAD(G)와 일부 연결이 가능한 기술요소, 셋째, ISAD(G) 어느 요소에도 부합하지 않고 미술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요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4〉 참고).

〈표 4〉 ISAD(G) 기술영역을 기준으로 한 국내·외 미술관 기술요소 비교

	국외미술관				국내미술관	
	GRI	MoMA	TATE	NGC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식별 영역	참조코드		참조코드 수정고 대체참조코드		참조코드	분류번호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일자	일자	일자	일자	생산연도	연도
			일자주기			
			계층		기술계층	
	규모	규모	규모	규모	규모	용량
	기술	기술			유형	수량
	위치		위치		개요	초록
					위치	위치
					이미지	
배경 영역	생산자명	생산자명	컬렉션명		생산자	구분
	소장이력	출처	소장이력	소장력	자료 생성, 소장 이력	타입
	수집정보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수집정보	창조자
	개인/역사적 주기	개인/역사적 주기	행정연혁	개인이력/행정이력		제작자
	컬렉션의 범위와 내용	범위와 내용 주기	기술	컬렉션의 범위와 내용	범위와 내용	제작자
내용과 구조 영역	정리주기	정리	정리	컬렉션 조직	범위와 내용	범위
	평가					배열
	추가이관		추가이관			
				키워드		

	국외미술관				국내미술관	
	GRI	MoMA	TATE	NGC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접근과 이용 조건 영역	접근제한요소	접근 제한	접근상태	접근 제한	접근환경	제한
	요청자료		접근조건			
			접근주기 기간만료			
	재생산 이용조건				원본열람여부	
	저작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	저작권 상태		이용환경	
			저작권 소유자			
	언어		언어		언어	언어
	물리적 특성		물리적 기술		매체의 속성	물리적, 기술적 접근
			포맷(Format)			
	검색도구		검색도구		디지털	
연관 자료 영역		이용 가능한 대안 형태	원본의 존재와 위치		원본/복본 존재와 위치	
	관련자료	관련자료	시본의 존재와 위치			
	출판권리		출판주기		관련미술자료	
	인용구	인용구		인용구		서지정보
			카탈로그 상태			인용구
	디지털컬렉션					
주기 영역		추가기술데이터	주기		추가설명	주기사항
	전시					전시
	처리과정	처리과정 및 조건		처리정보		
기술 통제 영역	저자			접근정보	기술담당자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	
					수정근거, 사유	

ISAD(G) 연결 가능한 기술요소

미술관 독자 또는 추가 기술요소

※ 국립현대미술관 기술요소는 컬렉션, 시리즈, 아이템 계층의 기술요소를 모두 합하여 비교 분석함

〈표 4〉와 같이 ISAD(G) 7개 영역의 26개 기술요소는 어느 기술요소도 누락됨 없이 6곳의 모든 미술관 기술요소들과 연결이 가능하였다. 이 절에서는 각 기관의 기술요소들에 관한 비교 내용을 ISAD(G)의 영역을 기준으로 부분 연결이 가능한 요소와 독자적인 요소 두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1) 식별영역

ISAD(G) 식별영역의 기술요소 중 ‘참조코드’는 4곳, ‘기술계층’은 2곳,

‘제목’, ‘일자’,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는 6곳의 미술관에서 모두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미술관이 ISAD(G) 식별영역 내 모든 기술요소를 채택하여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SAD(G) 식별영역 기술요소의 하위 기술요소로 부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테이트 ‘수장고’, 국립현대미술관 ‘유형’과 ‘수량’이다. ‘수장고’는 테이트 아카이브 고유번호(National ID)를 기술하는 것으로 ISAD(G)의 ‘3.1.1 참조코드’에 해당한다. ‘유형’과 ‘수량’은 자료의 형태 및 수량을 기술하는 요소로 미술 아카이브의 다양한 매체와 그에 따른 수량을 세분화하여 기술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는 ISAD(G) ‘3.1.5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수량, 부피, 크기)’의 하위 기술요소로 연결할 수 있다.

한편 ISAD(G) 식별영역의 기술요소와 연결할 수 없는 미술관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는 ‘기술’, ‘위치’, ‘대체참조코드’, ‘일자주기’, ‘이미지’, ‘구분’, ‘타입’이다.

‘기술’은 일반적으로 컬렉션이 포함하는 자료의 특징과 내용들의 정보를 총론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미술관 4곳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위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수장고 또는 장소의 위치를 기술하는 것으로 4곳의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술’을 통해서만 개괄적인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위치’를 통해서만 자료의 보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자료의 내용 구조 및 관리 측면에서, 이 두 기술요소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 참조코드’와 ‘일자주기’는 테이트 아카이브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로 ‘대체 참조코드’의 경우, 자료가 테이트에 도착하기 전의 위치 ID를 기술하는 것이며 ‘일자주기’는 자료에 정확한 일자가 적혀있지 않거나 미상인 경우 또는 목록 담당자가 자료의 일자를 추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술요소이다. 이를 통해 테이트 아카이브는 정확한 일자에 대한 기술과 예측 및 추정과 관련된 기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로 아이

템 계층에서 자료를 식별하기 위하여 대표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기술하여 이미지만으로도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구분’과 ‘타입’은 백남준아트센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출판물(Publication), 미디어(Media), 그래픽(Graphics), 아카이브(Archives), 비디오아카이브(Video Archives) 등과 같이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와 라이브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편의상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유형과 세부유형이다.

(2) 배경영역

ISAD(G) 배경영역 기술요소인 ‘생산자명’, ‘기록관리 이력’, ‘행정연혁/개인이력’은 각각 5곳, ‘수집/인수 직진의 출처’는 3곳의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술관이 ISAD(G) 배경영역 내 모든 기술요소를 채택하여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SAD(G)와 부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요소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제작지’와 ‘제작자’로 ISAD(G) ‘3.2.1 생산자명’의 하위 기술요소로 연결할 수 있다.

(3) 내용과 구조 영역

ISAD(G) 내용과 구조 영역에서 ‘범위와 내용’은 6곳, ‘정리체계’는 5곳, ‘추가이관’ 2곳, ‘평가·폐기·처분일정 정보’는 1곳의 미술관에서 선택하여 기술하고 있다. ‘범위와 내용’과 ‘정리체계’는 미술관 아카이브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추가이관’과 ‘평가·폐기·처분일정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ISAD(G) 내용과 구조 영역 기술요소와 연결할 수 없는 미술관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키워드’이다. ‘키워드’는 인명, 지명,

단체명, 주제명, 사건명 등을 기술하여 효과적인 검색과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특화된 기술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ISAD(G)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에서 접근조건은 6곳, 재생산 조건, 언어와 자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각각 4곳, 검색도구는 2곳의 미술관에서 채택하여 기술하고 있다.

ISAD(G)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기술요소 중 하위 기술요소로 부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요소는 ‘요청자료’, ‘접근조건’, ‘기간만료’와 ‘저작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 ‘저작권 상태’, ‘저작권 소유자와 ‘포맷’, ‘매체의 속성’이다. 게티미술연구소의 ‘요청자료’는 정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이는 아카이브 열람 및 서비스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술요소로 DACS의 하위기술요소 ‘4.1 접근조건’으로 연결할 수 있다. 테이트의 ‘접근조건’은 테이트 기술요소 ‘접근 상태’의 자료 공개여부와 상태에 따른 공개(open), 비공개(closed), 대체물 사용(use of surrogate required), 생산불가(produceable), 미분류(uncatalogued) 기술과 그에 합당한 이유와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다.

‘기간만료’는 저작권 또는 기증자의 요청 등으로 접근이 제한된 자료의 제한 시점을 기술하는 것으로 기술시, 일반인들의 접근이 허락되는 일자를 기술한다. 이 두 기술요소는 ISAD(G) ‘3.4.1 접근조건’의 하위 기술요소로 연결할 수 있다. 게티미술관 ‘저작권’, 모데미미술관 ‘저작권 및 지적재산’, 테이트 ‘저작권 상태’와 ‘저작권 소유자’는 ISAD(G)의 ‘3.4.2 재생산 조건’의 하위 기술요소로 연결할 수 있다. 미술 아카이브는 자료 생성시 개인 및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며 예술적 가치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미술관에서는 저작자와 관련한 기술요소를 일반기

목록보다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테이트 ‘포맷’과 국립현대미술관의 ‘매체의 속성’은 자료의 포맷과 속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ISAD(G)의 ‘3.4.4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의 하위 기술요소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는 일반기록물보다 복잡한 형태 및 특성을 지니기에 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ISAD(G)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기술요소와 연결할 수 없는 미술관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는 테이트의 ‘접근주기’, 국립현대미술관의 ‘원본자료 열람여부’와 ‘디지털’이다. 테이트에서 제시하는 ‘접근주기’는 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테이트 아카이브 직원만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직원용 관리 기술요소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원본자료열람여부’와 ‘디지털’은 자료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기술요소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열람서비스 및 전시·교육 등에 대한 아카이브의 활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연관자료 영역

ISAD(G) 연관자료 영역 기술요소에서 원본의 존재와 위치는 2곳, 사본의 존재와 위치는 3곳, 관련 기술 단위는 4곳, 출판주기는 3곳의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ISAD(G)와 부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요소는 모담미술관의 ‘이용 가능한 대안 형태’이며 이는 컬렉션 가운데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사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기술요소로 사본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의 형식과 해상도 및 구현형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요소이다. DACS의 ‘6.2 사본의 존재와 위치’로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ISAD(G)의 ‘3.5.2 시본의 존재와 위치’와 연결된다.

ISAD(G) 연관자료 영역 기술요소와 연결할 수 없는 미술관의 독자적

인 기술요소는 게티미술연구소 외 3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용구’, 게티미술연구소의 ‘디지털컬렉션’, 테이트의 ‘카탈로그 상태’이다. ‘인용구’는 컬렉션명, 제목, 일자, 생산자, 생산연도, 보관장소 등의 주요 기술요소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기술’ 또는 ‘개요’의 최소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게티미술연구소의 ‘디지털 컬렉션’은 프리모 검색(Primo Search)⁴²⁾과 연동된 것으로 아카이브의 열람과 접근에 대한 측면을 고려한 기술요소이다. 테이트의 ‘카탈로그 상태’는 카탈로그를 온라인상에서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술요소로 이 역시 아카이브의 열람 및 접근에 대한 측면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티미술연구소와 테이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술관은 연관자료 영역을 다른 영역의 기술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는 이 영역의 기술을 통해 원본 및 사본 자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간의 연결 및 공유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통합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연관자료 영역은 미술 아카이브의 열람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기술할 필요가 있다.

(6) 주기영역

ISAD(G) 주기영역에서 주기는 3곳의 미술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ISAD(G) 주기영역 기술요소와 연결할 수 없는 미술관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는 모담미술관의 ‘추가기술데이터’, 게티미술연구소와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 게티미술연구소 외 2곳의 ‘처리과정’이다. ‘추가기술테

42) 게티미술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 시청각자료, 도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들을 제목, 생산자, 주제로 검색이 가능한 검색시스템, [Online] [인용날짜: 2015. 9. 16], <http://primo.getty.edu/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id=GRI>.

이터'는 컬렉션 기술시 축약형으로 표현된 기술을 원래의 명칭과 약칭을 병기 표기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시는 전시 참여이력을, 처리과정은 정리뿐만 아니라 아카이브를 프로세싱하면서 발생하는 수집,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 기술요소들은 다른 기술요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보충하는 성격을 지닌 '주기' 요소와 연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비교 분석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특성상 전시 관련 정보 또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를 독자적인 요소로 설정하였다.

(7) 기술통제 영역

ISAD(G) 기술통제 영역 기술요소에서 아키비스트 주기는 3곳,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는 각각 1곳의 미술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ISAD(G)와 부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요소는 게티미술연구소 '저자'와 캐나다국립미술관 '접근정보'이다. '저자'는 컬렉션의 검색도구를 생성하고 정리한 인물들을 표시하는 기술요소이며 '접근정보'는 각각의 컬렉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정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DACS의 '8.1.5 아키비스트와 일자'에 해당한다. 즉, ISAD(G) '3.7.1 아키비스트 주기'에 해당한다.

ISAD(G) 기술통제 영역 기술요소와 연결할 수 없는 미술관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정근거, 사유'이다. 미술관 아카이브는 자료 기술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때 기술은 빈번하게 수정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정근거, 사유' 기술요소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미술관은 기술통제 영역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역을 통해 미술관은 기술을 담당하는 관리자, 규칙, 수정 등에 대한 정보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통제 영역은 수정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미술 아카이브의 기술에 있어 필요하며 이를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4.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안)

1) 기술요소 설계 원칙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를 수집·관리·활용하고 있는 미술관에 적용 가능한 기술요소 제안을 위하여 아래의 원칙으로 기술요소를 설계하였다. 국내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기록물기술표준인 ISAD(G) 2판을 토대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범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국제표준은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특성을 가지는 미술관 아카이브의 기술요소를 포괄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AD(G)의 7개 기술영역 및 기술요소들을 기준으로 하되 보존기록의 국가적 기술표준인 미국 DACS 2판(2013), 영국 MAD 3판(2000), 캐나다 RAD 개정판(2008), 한국 NAK 2판(2011)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들을 기반으로 미술관 아카이브를 위한 기술요소를 설계하였다.

설계시, 비교대상인 국가적 기술표준 4개 중 적어도 하나의 표준에서 제시되면서 사례조사 미술관 6곳 중 적어도 1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표준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미술관의 독자적인 기술요소로 제시된 요소들은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조사 미술관의 수와 기술요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더불어 선정된 기술요소 가운데 ISAD(G)의 7개 영역에 일대일로 완벽하게 연결할 수 없지만 특성이 비슷한 기술요소의 경우, 유사한 영역에 배치하였다.

통상적으로 미술관 아카이브는 자료의 규모에 따라 컬렉션과 같은 대규모 단위로 관리하거나 파일 또는 아이템 계층과 같이 소규모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규모와 계층에 따라 기술요소를 다르게 채택하였다. 더불어 계층에 따라 동일한 기술요소라 할지라도 컬렉션 계층의 기술은 일반적인 것, 파일 또는 아이템 계층의 기술은 특수한 것을 내포하여 기술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계층별 기술요소는 필수요소와 선택요소로 구분하였다. 미술 아카이브 기술시 필수요소를 지정하면, 이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므로 기본정보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타 기관 및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시 필수요소에는 ISAD(G)의 필수요소를 모두 반영하였고 미술 아카이브의 개괄적인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2) 기술요소 제안

ISAD(G)의 기술영역별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보존기록 기술표준 4개를 통해 분석된 내용과 사례조사에서 제시된 6개 미술관 기술요소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5>에서는 이 비교 분석을 통해 각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표준 및 해당 기술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조사 대상 미술관을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과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요소를 미술관 아카이브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ISAD(G)와 연결할 수 없는 미술관의 독자적인 기술요소일 경우 표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기술

요소이므로 이 특화된 기술요소가 국내 미술관 아카이브에 반영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표 5〉 ISAD(G) 영역별 국가 기술표준 및 미술관 기술요소

구분	요소	해당표준	해당기관	구분	요소	해당표준	해당기관
식별 영역	참조코드	D, R, M, N	G, T, 국, 백	이용 조건 영역	언어와 자체	D, R, M, N	G, T, 국, 백
	제목	D, R, M, N	G, Mo, T, N, 국, 백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D, R, M, N	G, T, 국, 백
	일자	D, R, M, N	G, Mo, T, N, 국, 백		검색도구	D, R, N	G, T
	기술계층	D, R, M, N	T, 국		접근주기	-	T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D, R, M, N	G, Mo, T, N, 국, 백		디지털	-	국
	수장고명과 위치	D, M	G, T, 국, 백	원본자료열람여부	-	국	
	기술	-	G, Mo, 국, 백	연관 자료 영역	원본의 존재와 위치	D, R, N	T, 국
	대체참조코드	-	T		사본의 존재와 위치	D, R, N	Mo, T, 국
	일자주기	-	T		관련 기술 단위	D, R, M, N	G, Mo, T, 국
	이미지	-	국		출판주기	D, R, M, N	G, T, 백
구분	-	백	인용구		-	G, Mo, N, 백	
타입	-	백	디지털컬렉션		-	G	
배경 영역	생신자명	D, R, N	G, Mo, T, 국, 백	주기 영역	주기	D, R, N	T, 국, 백
	행정연혁/개인이력	D, R, M, N	G, Mo, T, N, 백		추가기술데이터	-	Mo
	기록관리 이력	D, R, M, N	G, Mo, T, N, 국		전시	M	G, 백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D, R, N	G, T, 국		처리과정	M	G, Mo, N
내용과 구조 영역	범위와 내용	D, R, M, N	G, Mo, T, N, 국, 백	기술 통제 영역	아키비스트 주기	D, M, N	G, N, 국
	평가, 폐기, 처분일정 정보	D, M, N	G		규칙과 협약	D, N	국
	추가기관	D, R, M, N	G, T		기술일자	D, N	국
	정리체계	D, R, M, N	G, Mo, T, N, 백		수정 근거, 사유	-	국
	색인어	N	국		분류기록	M	-
접근과 이용 조건 영역	접근조건	D, R, M, N	G, Mo, T, N, 국, 백	처리 과정 통제 영역	문의기록	M	-
	재생산 조건	D, R, M, N	G, Mo, T, 국				

해당표준 및 해당기관 공통 기술요소

※ 해당 표준 D: DACS / R: RAD / M: MAD / N: NAK(국가기록원)

※ 해당 기관 G: Getty / Mo: MoMa / T: Tate / N: NGC / 국: 국립현대미술관 / 백: 백남준아트센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기술요소 설계 원칙에 따라 보존기록 기

술표준 및 미술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 중 표준과 사례 조사기관 둘 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요소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들 기술요소 중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기술요소는 요소 간 연결하여 하나의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기술영역별·요소별로 연결이 불가능한 기술요소이거나 1개의 표준 또는 1곳의 미술관에서만 수용하고 있는 기술요소는 중요도가 낮은 기술요소로 판단하여 최대한 제외하였다.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기술요소이거나 미술 아카이브의 서비스 및 전시, 출판 등과 관련하여 활용적인 측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하여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로 제안하였다.

ISAD(G)의 영역별로 본 연구의 기술요소(안)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기술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식별영역

ISAD(G) 식별영역의 참조코드, 제목, 일자, 기술계층,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는 해당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기술요소(안)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ISAD(G)와 연결할 수 없는 기술요소는 ‘수장고명과 위치’, ‘기술’, ‘대체참조코드’, ‘일자주기’, ‘이미지’, ‘구분’, ‘타입’이다. ‘수장고명과 위치’는 DACS 식별요소 중 하위기술요소 ‘2.2 수장고명과 위치’에 해당하며 4곳의 미술관에서 ‘위치’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이다. ‘기술’은 주로 컬렉션에 해당하는 인물 및 단체 등에 대한 특징과 내용을 총론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이 두 기술요소는 모든 보존기록 기술표준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미술관에서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기술요소로 이를 채택하였다. 단 ‘기술’은 개괄적으로 자료의 내용과 구조를 표현하는 성격

의 기술요소로 판단하여 내용과 구조 영역으로 재배치하였다.

또한 식별영역에서 테이트의 독자적인 '대체참조코드'와 '일자주기' 기술요소는 자료의 식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종 비교 분석에서는 '대체참조코드'를 ISAD(G) 식별영역의 '3.1.1 참조코드'의 하위요소로 포함하였다. 또한 '일자주기'를 '3.1.3 일자'의 하위 기술요소로 연결하였다.

이 밖에 식별영역에서 '이미지'는 미술 아카이브의 대여 또는 서비스 시 자료 식별을 위한 중요한 기술요소이기에 기술요소(안)로 선택하였다. 이에 반해 백남준아트센터의 '구분'과 '타입'은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와 라이브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편의상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유형과 세부유형이므로 이는 기술요소(안)에서 배제하였다.

(2) 배경영역

ISAD(G) 배경영역의 생산자명, 행정연혁/개인이력, 기록관리 이력,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는 해당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요소로 나타났으며 기술표준뿐만 아니라 각국의 미술관에서 미술 아카이브의 생산 배경 및 이력을 기술하고자 빈번하게 사용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기술요소(안)로 채택하였다.

(3) 내용과 구조 영역

ISAD(G) 내용과 구조 영역의 범위와 내용, 정리체계는 해당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요소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술요소(안)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평가·폐기·처분일정 정보', '추가이관'은 공통적으로 보존 기록 기술표준에서는 제시되고 있지만 미술관 사례에서는 1~2개 기관

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 대부분은 미술관에 입수되기 전 또는 기술작업을 진행하면서 평가 또는 폐기의 과정을 거치므로 ‘평가·폐기·처분일정 정보’의 경우 기술요소(안)에서 배제하였다. 하지만 ‘추가이관’의 경우, 미술 아카이브가 보존기록의 성향을 가지지만 다양한 경로에 의해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특징을 감안하여 이를 기술요소(안)로 선택하였다.

ISAD(G) 내용과 구조 영역과 연결할 수 없는 기술요소는 ‘색인어’였으며 NAK(국가기록원)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이다. 이는 미술 아카이브의 검색과 활용 등의 서비스 측면을 고려한 기술요소이기에 채택하였다.

(4)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ISAD(G)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의 접근조건, 재생산 조건, 언어와 자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검색도구 기술요소는 해당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요소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채택하였다. 이 가운데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의 경우, 각국의 미술관에서 미술 아카이브가 일반기록물보다 여러 가지의 형태를 지니기에 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요소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술요소(안)에서는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의 하위요소에 해당하는 ‘매체의 속성’ 기술요소를 추가하여 파일 또는 아이템 계층에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ISAD(G)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과 연결할 수 없는 기술요소는 테이트의 ‘접근주기’, 국립현대미술관의 ‘원본자료열람여부’와 ‘디지털’이다. ‘접근주기’는 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테이트 아카이브 직원만 열람할 수 있는 기술요소이다. 이는 최종 비교 분석에서 ‘접근조건’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원본자료열람여부’는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종 비교 분석에서는 이를 식별 영역의 '수장고명과 위치'로 연결하였다. 반면 '디지털' 기술요소는 자료의 원본자료의 디지털화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술요소(안)로 채택하였다.

미술 아카이브는 자료 생성시 개인 및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며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각국의 미술관에서는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에서 저작자와 관련한 기술요소를 일반기록물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술 아카이브 접근 및 서비스에 대한 활용을 높이고자 다양한 기술요소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연관자료 영역

ISAD(G) 연관자료 영역에서 원본의 존재와 위치, 사본의 존재와 위치, 관련 기술 단위, 출판주기는 해당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요소로 이를 채택하였다. 단, 원본과 사본의 존재와 위치는 교차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요소로 제안하였다. 관련 기술 단위는 미술관 안과 밖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자 기술요소명을 '관련기술 단위/관련 정보원'으로 변경하였다. 출판주기는 출판물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인용사항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출판의 추가설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술요소(안)에서는 주기영역으로 이동하였다.

ISAD(G) 연관자료 영역과 연결할 수 없는 기술요소는 '인용구', '디지털컬렉션'이다. '인용구'는 컬렉션명, 제목, 일자, 생산자, 생산연도, 보관장소 등의 주요 기술요소를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기술' 또는 '개요'의 최소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인용구'는 '기술'의 내용을 중

복 기입하는 것이므로 기술요소(안)에서 제외하였다. ‘디지털컬렉션’은 게티미술연구소에서 소장 자료 중 디지털화된 자료의 이미지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이퍼링크를 통해 검색시스템과 연결되는 기술요소이다. 이는 미술 아카이브의 활용적인 측면을 감안한 기술요소로 ‘디지털’ 또는 ‘사본의 존재와 위치’로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컬렉션’은 향후 국내 미술관 아카이브 콘텐츠가 상당한 양이 축적되고 시스템 개발이 활성화되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술요소라고 판단하여 기술요소(안)로 채택하였다.

(6) 주기영역

ISAD(G) 주기영역의 주기는 해당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요소이므로 이를 기술요소(안)로 채택하였다.

이 영역에서 ISAD(G)와 연결할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요소는 ‘추가 기술데이터’, ‘전시’, ‘처리과정’이다. 이 기술요소들은 다른 기술요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보충하는 성격을 지닌 ‘주기’로 연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기술데이터’는 ‘주기’ 기술요소로 연결하였다. 하지만 ‘전시’, ‘처리과정’은 미술 아카이브 특성상 전시관련 정보 또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를 기술요소(안)로 선택하였다. 또한 주기영역에서는 미술관 안과 밖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및 아카이브가 상호 연계되어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기술통제 영역

ISAD(G) 기술통제 영역의 아키비스트 주기,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는 해당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요소이므로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ISAD(G)와 연결할 수 없는 기술요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정 근거, 사유’이다. 이는 미술 아카이브 기술의 수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된 기술요소라 판단하여 기술요소(안)로 채택하였다.

그 밖에 처리과정 통제영역의 분류기록, 문의기록은 ISAD(G)와는 별도로 생성된 영역의 기술요소로 MAD 3판에서 지정한 것이다. 이는 여타 보존기록 기술표준 및 미술관에서 수용하여 적용된 기술요소가 아니기에 제외하였다.

(8)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보존기록 기술표준 및 미술관에서 제시한 기술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요소를 선별하였다. 또한 미술관 기술요소 가운데 미술 아카이브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이후 기술요소를 계층별·영역별로 재구성하여 <표 6>과 같이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표 6>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안)

기술 영역	컬렉션 계층	시리즈 계층	파일/아이템 계층
식별 영역	참조코드	참조코드	참조코드
	제목	제목	제목
	생산연도	생산연도	생산연도
	기술계층	기술계층	기술계층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유형
			수량
수장고명과 위치	수장고명과 위치	수장고명과 위치	
		이미지*	
배경 영역	생산자명	생산자명	생산자명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기록관리 이력	기록관리 이력	기록관리 이력
	행정연혁/개인이력		

기술 영역	컬렉션 계층	시리즈 계층	파일/아이템 계층
	범위와 내용	범위와 내용	범위와 내용
내용과 구조 영역	기술*		
	추가이관	추가이관	추가이관
	정리체계	정리체계	
			색인어*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접근조건	접근조건	접근조건
	재생산 조건	재생산 조건	재생산 조건
	언어와 자체	언어와 자체	언어와 자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매체 속성*
			디지털화*
연관자료 영역	검색도구	검색도구	검색도구
	관련 기술 단위/관련 정보원	관련 기술 단위/관련 정보원	관련 기술 단위/관련 정보원
		원본과 사본의 존재와 위치	원본과 사본의 존재와 위치
	디지털컬렉션*	디지털컬렉션*	디지털컬렉션*
주기 영역	주기	주기	주기
	출판주기	출판주기	출판주기
		전시주기	전시주기
		대여주기*	대여주기*
		보존주기	보존주기
기술통제 영역	기술담당자	기술담당자	기술담당자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	기술일자	기술일자
	기술수정 근거와 사유*	기술수정 근거와 사유*	기술수정 근거와 사유*

필수 기술 요소

* 독자 기술 요소

본 논문에서 미술관 기관기록 및 매뉴스크립트를 포함하는 미술관 아카이브에 제한하고자 하는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ISAD(G)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 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연관자료 영역, 주기영역, 기술통제 영역의 7개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컬렉션, 시리즈, 파일 또는 아이템 계층에 맞는 각각의 기술요소를 설정하였다. 컬렉션 계층에서는 기술요소 27개, 시리즈 계층에서는 29개, 파일 또는 아이템 계층에서는 33개를 제안하였다.

둘째, 계층별로 필수요소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컬렉션, 시리즈 계층의 필수요소는 식별영역의 참조코드, 제목, 생산연도, 기술계층,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와 배경영역의 생산자명, 범위와 내용을 포함하여 총 7개 기술요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파일 또는 아이템 계층의 필수요소는 컬렉션 및 시리즈 계층의 필수요소에 기술 단위의 규모와 매체를 세분화하여 유형, 수량을 추가하여 총 8개의 기술요소를 지정하였다. 이 필수요소들은 미술관 아카이브의 수집이력과 자료가 속한 기관 및 기술계층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와 자료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기술함으로써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술관 아카이브의 범위와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자료의 유형별(전시인쇄물, 간행물, 일반문서, 공문서, 판화 등) 내용 기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존기록 기술표준과는 별도로 미술 아카이브의 특징을 반영한 특화된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미술관 아카이브 독자 기술요소

기술영역	컬렉션 계층	시리즈 계층	파일/아이템 계층
식별영역	-	-	이미지
내용과 구조 영역	기술	-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	-	색인어
	-	-	매체 속성
	-	-	디지털화
관련자료 영역	디지털컬렉션	디지털컬렉션	디지털컬렉션
	-	대여주기	대여주기
기술통제 영역	기술수정 근거와 사유	기술수정 근거와 사유	기술수정 근거와 사유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요소(안)은 다양한 매체와 형식과 수집경로를 지니는 미술 아카이브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술 아카이브의 열람 및 서비스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하

였고 미술관 내부적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관리 이력을 통제하도록 하였다.⁴³⁾

5. 결론

본 연구는 미술관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하는 미술 아카이브의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미술관 아카이브가 여타 기관이나 조직의 기록보다 개인의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매체와 형식이 다양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서 기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국가들의 표준을 살펴보고 사례분석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내·외 미술관들의 지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미술관 아카이브의 기술영역에서 포함하고 있는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별영역은 미술관 아카이브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참조코드, 제목, 생산연도, 기술계층,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수장고명과 위치, 이미지, 유형, 수량을 제안하였다. 식별 영역에서는 자료의 보관 위치 및 미술 아카이브의 다양한 형식을 세분화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배경영역은 미술관 아카이브의 생산자에 관한 내용과 이력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생산자명,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기록관리 이력, 행정연혁/개인이력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내용과 구조 영역은 미술관 아카이브의 범위와 구조 및 내용에

43) 기술요소가 적용된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적용 사례는 이지은,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위논문, 2015, 116-134쪽 참고.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범위와 내용, 추가이관, 정리체계, 기술, 색인어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색인어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미술 아카이브의 열람 및 서비스 등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은 미술관 아카이브의 법적 상태나 접근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접근조건, 재생산 조건, 언어와 자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검색도구, 매체 속성, 디지털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매체 속성을 통해 미술 아카이브의 다양한 유형과 형식이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 기술요소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서비스, 출판, 전시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연관자료 영역은 미술관 아카이브와 관련한 기록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관련 기술 단위/관련 정보원, 디지털컬렉션, 원본과 사본의 존재와 위치로 구성하였다.

여섯째, 주기영역은 다른 기술요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나 추가적인 설명을 기술하는 것으로 주기, 출판주기, 전시주기, 대여주기, 보존주기로 구성하였다. 주기영역을 보존기록기술표준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및 처리과정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기술통제 영역은 미술관 아카이브를 기술한 아키비스트 또는 관리적인 측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기술담당자,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 기술수정 근거와 사유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기술수정근거와 사유는 미술 아카이브의 기술 수정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요소이다.

현재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관이 부재한 국내 미술관 또는 미술 유관 기관에서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예산을 점차 확충할 예정이다. 이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련 아카이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이를

표준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요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안한 7개 영역의 기술요소들은 미술 아카이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요소이자 향후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 표준을 선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술요소를 세분화하여 도출하고 표준화된 용어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록학계, 미술사학계 등의 학제간의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기술표준 제정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he Description Elements of Art Museum Archives

Lee, Ji Eun · Kim, Ji Hyun

Art Museum Archives are archives that are created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a sufficient worth that necessitate permanent preservation. Art Museum Archives, which include various medium and types, are archives that have information and evidence based value, and are established and supported for the research of the Art Museum and Art History.

Fo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an Art Museum Archiv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related description elements, and through this not only must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 archives be provided, but through a high utility finding aid, the creation context of the archived document should be provided so that users of the archive can easily access documents. In the case of Korean Art Museum Archives, there is a tendency to focus on the fragmented informational value of an individual archive document, which in reality causes the structural and contextual element characteristic of the document to be destroyed. Therefore this research supports the Hierarchical Description of Art Museum Archives and has the objective of proposing Art Archive Description Elements that promote the preservation of creation context and effective utilization. In addition, because personal records take up a large

portion of Art Archives and are very diverse in terms of medium and type, a Description Element that can reflect this is attempted to be proposed.

Key words : Art Archives, Museum Archives, Art Archives Description, Museum Archives Description, Arrangement and Description

